

#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 '온 힘'

### 진안군, 9월말까지 상황실 운영 피해 예방 및 대응 나서

진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말까지 축산분야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군은 우선 농업정책과 내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발 빠른 폭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폭염대비 축사 및 가축관리 요령 홍보 및 지도, 폭염피해 상황과악 및

일일보고, 긴급재해 발생 시 복구 대응대책 마련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600여만원, △폭염대비 콜링패드, 안개분무기, 환풍기 등 장비 지원에 5400만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1200만원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 축산농

가 피해 최소화해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일·열사병 방지를 위해 축사지붕·벽체 등에 단열재 추가 시공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과 환·송풍기 등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적정 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업·문화·경제·관광 상생발전 도모

### 장수군-몽골 셀렝게아이막 사마르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장수군은 4일 군수실에서 장영수 군수, 몽골 셀렝게아이막 사마르솜 마투 사비야르바타르 군수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을 위한 장수군-사마르솜 우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도시는 상호 간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몽골 셀렝게아이막 사마르솜은 몽골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 38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수려해 자연관광 코스와 러시아 접경지역으로 교통시설이 발달해 있다.

주요 소득구조는 농업과 목축, 벌꿀

산업으로 장수와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교류를 펼쳐 군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 24일까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서 진행

진안군은 지역문화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축제와 문화 행사를 기

획할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한다.



진안군은 매주 월요일 4회차에 걸쳐 16시간의 과정으로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한다.

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교육은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 4회차에 걸쳐 16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약 3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 3일 심봉기 작가를 시작으로 성기석(인문공간 파사주)대표, 최상식 여행작가 등의 강사가 참여해 이론식 강의의 형태를 지양하고, 수강생들과 함께 인견을 도출하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습형태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강연자로 나선 심봉기 작가는 개그맨을 웃기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 KBS개그콘서트(달인), 유머1번지, 토요대행진 등을 집필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강연자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의를 유쾌한 분위기로 이끌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축제와 행사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진안군 마을축제가 한 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올해도 44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무주군, 44개 마을 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이 올해도 44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바쁜 일손을 돕고 여성 농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운영(2016년 11개 마을, 사업비 24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지원(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한다. 지원 규모는 상·하반기 마을당 각 20일씩 총 40일 간 400만 원(총 사업비 2억 원)이다.

무주읍 가림마을 노인회장 조만길 씨는 "가장 바쁘고 일손도 모자란데 일하다 말고 밥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하려면 그것도 참 성가신 일이었다"라며 "공동급식이 지원되고 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같이 밥 먹고 농사일 얘기도 하고, 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 식사까지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동급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김재원 팀장은 "여럿이 함께 하는 공동 급식이다 보니 식중독과 화재 등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며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모든 면에서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북서 가장 시원한 곳 '장수군'

전주기상청, 폭염·열대야 통계자료 발표

전주기상청이 최근(5월 31일) 발표한 폭염 및 열대야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장수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폭염일수는 장수군이 평균 5일로 전라북도 평균인 14일보다 월등하게 낮고 있으며, 가장 더운 안주군의 26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많이 난다.

특히, 밤 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열대야 부문에서는 장수군이 지난 10년간 단 1회만 발생하여 평균 0.1일로 전북 평년 평균인 7.3일에 비교했을 때 훨씬 시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수군이 여름철에 유독 시원한 이유는 높은 해발고도와 산림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으며, 폭염대응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여름은 어느 해 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관내 휴양림과 계곡 등의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피서관광객 맛을 준비와 지역주민의 무더위 해소를 위한 무더위쉼터 293개소와 폭염대응 그늘막 등 2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폭염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

장수군은 4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6개 대도시 기초단체 및 82개 농어촌 기초단체 등 총 9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수군은 통합사례관리 등 6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주 현대호텔에서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 복지선진국 우수사례 국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군은 취약계층 아동 대부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주기적인 가정방문과 대상자 및 가족 변화 파악, 아동 및 가족에게 계획·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원활한 슈퍼비전 체계 구성과 적극적인 운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진안군, 28일까지 비 재해보험 가입

진안군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비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받고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9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 보험대상을 식용 벼 뿐만 아니라 조사료용 벼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벼 품목의 경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와 병충해에 의한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장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외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한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마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올해부터 농가 보험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든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